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어촌대회 열린다

- 9. 19.(화)~9. 21.(목) 3일간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은 9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한다.

세계어촌대회는 전 세계 어촌이 마주한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과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린다. 대회에는 17개국 장·차관급 대표단과 52개 국내외 기관이 참여한다.

개막행사의 기조강연에서는 수산분야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아이슬란드 오션클러스터(Ocean Cluster)'의 창설자인 토르 시그피슨(Thor Sigfusson) 대표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마누엘 바란지(Manuel Barange) 어업양식 국장이 각각 '100% Fish - Growing the blue economy in smaller communities'와 'Blue Transformation'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전 세계 어촌의 현장과 어민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만날 수 있는 '월드어랩(어촌라이브)쇼'와 어촌의 고유한 문화와 어업유산 등을 만날 수 있는 '어촌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일반 국민들도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외에도 △청년과 여성어업인, △청색어항, △스마트 어촌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어촌 관련 주제의 학술행사도 진행되어 총 60명의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어촌대회가 전 세계 어촌이 직면한 위기와 기회를 파악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는 범국가적인 논의의 장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김정화 (044-200-5650)
	어촌어항과	담당자	주무관	박윤범 (044-200-565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shing Communities 2023

2023  
세계어촌대회

09.19. (화) ~ 09.21. (목)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주최 |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 | 2023 세계어촌대회 사무국

19일 환영행사

- ▶ 주요 참석자 환영인사
- ▶ 참석자 간 네트워킹

20일 개막행사

- ▶ 개막식
- ▶ 기조강연
  - ① 100% Fish  
Growing the blue economy in smaller communities
  - ② Blue Transformation
- ▶ 대담회
- ▶ 부대행사  
월드어람쇼, 세계어촌 홍보전시관

21일 학술행사

- ▶ 10개의 학술세션
  - ① 공동체
  - ② 청년&여성어업인
  - ③ 어업&양식
  - ④ 청색어항
  - ⑤ 어업분야 산업재해
  - ⑥ 국가 간 협력·연대
  - ⑦ 기후변화&재난안전
  - ⑧ 스마트 어촌
  - ⑨ 어업유산
  - ⑩ 어촌관광
- ▶ 부대행사  
월드어람쇼, 세계어촌 홍보전시관